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SCRIPTORY

로마서 21 주차 (롬 7:7~17)

(2016년 1월 21일 - 2018년 1월 27일)

(제5권 21호)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SCRIP^TORY** 제5 권 – 제21 호

창간일: 2014 년 11 월 2 일

발간일: 2018 년 1 월 21 일

발행처:  B2B Missions,
800 Roosevelt, Irvine, CA 92620
www.b2bm.org

인용성경

한글성경: 대한 성서공회에서 출간한 개역개정

헬리어 성경: Deutsche Bibelgesellschaft, D-Stuttgart 에서 출간한 Greek New Testament 4th edition (1993)

히브리어 성경: Deutsche Bibelgesellschaft, D-Stuttgart 에서 출간한

BIBLIA HEBRAICA STUTTIGARTENSIA (1997)

번역 및 해설

편집책임: Steve Kim (M.Div, Talbot School of Theology; D.Min Program, Talbot School of Theology)

편집위원: Sean Roh (M.Div, Talbot School of Theology; Th.M, Gordon-Conwell Theological Seminary)

Charlie Cho (M.Div, Talbot School of Theology; Th.M, Talbot School of Theology)

Jeonghan Lee (얼바인 온누리교회 집사)

이 큐티 자료는 회원 여러분들의 작은 정성으로 만들어 집니다. 여러분의 작은 정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파하는 힘이 됩니다. 일주일에 1 불 (한국 약 1000 원) 이상 자유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동참을 원하시는 분은 B2B Missions 의 홈페이지 (www.b2bm.org) 를 방문하셔서 회원으로 가입해 주십시오.

이 책에 수록된 원어해석과 해설에는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더 정확한 해석에 대한 아이디어를 갖고 계시는 분들은 의견을 주시면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회원들에게도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Copyright © 2016 by B2B Missions. All rights reserved. (이 책은 저자의 고유한 아이디어를 담고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의 인용 또는 전제시 반드시 B2B Missions 또는 저자의 허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죄가 욕망을 만들었다! (주일)

오늘의 본문 (롬 7:7~8)

- ⁷ Τί οὖν ἐροῦμεν; (그래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할 것인가?)
ὁ νόμος ἁμαρτία; (율법이 죄냐?)
μὴ γένοιτο· (절대 그럴 수 없느니라)
ἀλλὰ τὴν ἁμαρτίαν οὐκ ἔγνω· (그러나 내가 죄를 알지 못했다)
εἰ μὴ διὰ νόμου· (만약 율법에 의하지 않았다면)
τὴν τε γὰρ ἐπιθυμίαν οὐκ ᾔδειν· (내가 욕망을 알지 못했을 것이다)
εἰ μὴ ὁ νόμος ἔλεγεν· (만약 율법이 말하지 않았다면)
οὐκ ἐπιθυμήσεις· (욕망하지 말라 [라고])
- ⁸ ἀφορμὴν δὲ λαβοῦσα· (그러나 기회를 잡아서)
ἡ ἁμαρτία διὰ τῆς ἐντολῆς κατειργάσατο· (죄가 계명을 통해 만들었다)
ἐν ἐμοὶ πάσαν ἐπιθυμίαν· (내 안에 각종 욕망들을)
χωρὶς γὰρ νόμου ἁμαρτία νεκρά· (율법을 떠난 죄는 죽은 시체이기 때문이다)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만약 율법이 욕망(탐심)하지 말라고 말하지 않았다면 내가 욕망(탐심)을 알지 못했을 것이다”(7절 하반기).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욕망이 있다는 걸 율법을 통해 알게 됐다고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욕망(탐심)은 소위 십계명의 열 번째 계명을 지칭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다음과 같이 명령하셨다.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찌니라 네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네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찌니라”(출 20:17).

바울은 다른 이웃의 집을 탐하는 마음,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여종, 그의 소나 나귀나 무릇 이웃의 소유를 탐하는 마음이 자신 안에 있다는 사실을 이 계명을 읽을 때 비로소 깨달았다고 말하고 있는 걸까? 결론부터 말하면 마음에 없던 욕망이 율법 때문에 생겨나지는 않는다. 다시 말해 타인의 소유를 탐하지 말라고 해서 없던 탐심이 갑자기 생겨서 남의 물건이 좋아 보이고 그것을 반드시 갖고 싶은 욕망이 일어난다는 말이 아니다. 대개의 경우 사람들은 욕망을 부정적으로 인식한다. 하지만 바울이 말하는 욕망은 그런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다. 그가 말하는 욕망은 오히려 율법을 지켜내고 싶은 욕망을 말한다. 예를 들어, 살인하지 말라는 율법을 들으면 살인하고 싶은 욕망이 드는 것이 아니라 절대 살인은 하지 말아야겠다는 욕망이 든다. 제 아무리 인간의 본성이 악하다고 해도 사람을 죽이고 싶은 욕망이 그리 쉽게 들지는 않는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서 바울이 하고 있는 탐심은 정확히 그 반대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마땅히 살인은 물론 남의 물건을 탐하거나 훔치지 않으려고 애쓰며 산다. 그런데 율법이 오는 순간 누구나 당연히 여기며 행해오던 일들이 그 이상의 의미를 갖게 된다. 율법을 지켜 하나님 앞에 올바르다 인정 받으려는 욕망이 생겨나기 때문이다. 어떻게 해서든 율법을 지켜내고자 하는 욕망이 자리잡기 시작한다. 바울이 여기서 일인칭 단수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바울은 자신의 내면에 있는 욕망에 대해 이야기 하면서 그것을 다른 이들에게로 일반화하지 않았다. 다시 말해 다른 사람들은 안 그럴지 몰라도 적어도 자신은 그랬다는 뜻이다. 하지만 알다

시피 당시 유대인들 중에는 수많은 바울들이 있었다. 공관복음을 읽어보면 이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다. 그들은 율법을 제대로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한 율법의 하부 조항을 세세하게 만들어 지켰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으로 대표되는 종교 지도자들의 문제는 부도덕하게 산 것이 아니라 너무 열심히 율법을 지킨 데 있었다. 그들은 바로 그 율법이 자신들의 위상을 돋보이게 해준다는 걸 너무도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최선을 다해 율법을 지키려고 애썼고, 어느 정도는 성공적이었던 것 같다. 바울 자신도 그가 바리새인이었을 때 행한 일에 대해 스스로 이렇게 평가했을 정도니 말이다.

“4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5 내가 팔일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의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6 열심히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빌 3:4-6).

바울 자신도 육체로 행한 일로 치자면 그 누구보다 내세울 게 많다고 말한다. 우선 그는 할례받은 유대인이다. 유대 율법에 따라 팔 일만에 할례를 받았다. 그것만으로도 다른 유대인들에게 자기도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는 걸 인정받고도 남는다. 그는 베냐민 지파에 속했고, 히브리인 중의 히브리인이다. 더구나 그는 행위와 의를 중시하는 바리새파에 속했고 스스로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고 자부할 정도였다. 이 말은 바울이 다른 바리새인들보다 더 열심히 율법을 지켰다는 말이 아니라 당시 대부분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도 바울처럼 의롭게 살았다는 뜻이다. 훗날 예수님을 만나고 비로소 율법이 자기에게 어떤 역할을 했는지 깨닫게 된 바울은 율법을 그토록 열심히 지키려 했던 자신의 마음을 에피두미아(ἐπιθυμία) 즉, 욕망으로 보았다. 예수님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내면에 있는 욕망, 즉 율법으로 스스로를 높이려는 욕망을 지적하신 적이 많다 (눅 18:14참조).

율법은 인간의 내면에 그것을 지키고 싶은 욕망을 만들어낸다. 그리고 인간들은 최선을 다해 율법을 지켜낸다. 문제는 그 이후부터다. 인간들이 스스로의 노력으로 자신의 선함을 인정받고, 율법의 행위로 온전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어떤 힘이 작동하기 시작한다. 마음 속으로 우쭐한 생각이 들고, 그걸 남들에게 어떻게든 자랑하고 싶어진다, 그리고는 율법에 못미치는 사람들을 비판하게 된다. 율법을 지키려는 욕망이 율법이 요구하는 틀에 자신을 맞추도록 하는 힘이 되긴 하지만 반대로 그리스도를 의지하려는 마음은 점점 희석된다. 스스로의 능력으로 의를 이룰 수 있는데 굳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에 의지할 필요가 있겠는가? 스스로의 의나 성공을 내세우는 사람들에게겐 공통점이 있다. 말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은근히 자신의 노력을 자랑한다는 점이다. 결국 하나님은 자신을 돋보이게 하는 강력한 도구가 된다. 신앙이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의에 매달리는 것이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 안에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욕망이 있음을 알았다. 그리고 그 욕망은 인간들 눈에 보기에 의로운 열매를 맺는데 매우 효과적이다. 그래서 그 욕망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다. 바울은 그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거기에서 벗어나 그리스도의 의로움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 있는가? 바울은 그 비결을 이렇게 설명한다. 빌립보서 3장을 좀 더 읽어보자.

“7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8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9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빌 3:7-9).

목상을 위한 질문

당신의 탐심은 어느 정도입니까? 하나님의 것까지 자기 것으로 소유하고픈 욕망이 있진 않나요?

계명에 의해 죽다 (월요일)

오늘의 본문 (롬 7:9~11)

- ⁹ ἐγὼ δὲ ἔζων (나는 살아 있었다)
χωρὶς νόμου ποτέ, (법을 떠나 있었을 때)
ἐλθούσης δὲ τῆς ἐντολῆς (그러나 계명이 오자마자)
ἡ ἁμαρτία ἀνέζησεν, (죄가 다시 살아났다)
- ¹⁰ ἐγὼ δὲ ἀπέθανον (그리고 나는 죽었다)
καὶ εὗρέθη μοι ἡ ἐντολή (그 계명이 나에게 발견되었다)
ἡ εἰς ζῶην, ([그 계명은 생명으로 이끌어야 하는 것인데)
αὕτη εἰς θάνατον· (그것이 사망으로 이끌었다)
- ¹¹ ἡ γὰρ ἁμαρτία ἀφορμὴν λαβοῦσα διὰ τῆς ἐντολῆς (계명을 통해 기회를 잡은 그 죄가)
ἐξηπάτησέν με (나를 완벽하게 속였고)
καὶ δι' αὐτῆς ἀπέκτεινεν. (그것을 통하여 나를 죽였다)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법을 떠나 있었을 때 ‘나’(에고 (ἐγὼ))는 살아 있었다. 그러나 계명이 오자마자 죄가 다시 살아났고 나는 죽었다. 그 계명은 [나를] 생명으로 이끌어야 하는데 오히려 나를 사망으로 이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계명을 통해 기회를 잡은 죄가 나를 완벽하게 속였고 계명을 통해 나를 죽였다.”

바울이 한 고백이다. 여기서 ‘나’는 바울 개인을 말하기도 하지만 사실 모든 인간을 지칭한다. 바울이 지금 개인 간증을 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계명이 오기 전에 나는 ‘살아 있었다’. 이처럼 과거 시제로 쓴 이유는 내가 어느 시점에서는 죽었다는 말이다. 어떤 계기로 인해 생명이 단절되었고 그 결과 지금의 나는 과거 어느 시점에 이미 죽었다는 말이다. 여기서 영적 죽음이니 육적 죽음이니 하는 복잡한 문제를 다루고 싶진 않다. 분명한 것은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시점에 ‘나’라는 존재는 이미 죽은 존재라는 것이다. 그런데 나를 죽게 한 것이 다름 아닌 계명이다. 이것이 바울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의 골자다.

바울이 한 이 진술에서 우리는 몇 가지 명제를 이끌어 낼 수 있다. 첫 번째로 계명은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죄’를 살려 낸다. 계명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아담에게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것이 계명이고, 시내산 아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십계명이며, 모압 평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진군을 앞두고 있던 백성들에게는 모세가 가르친 신명기의 명령들이 계명이다. 바울에 따르면 아담에게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진 순간 아담은 사실상 죽은 목숨이나 다름 없었다. [많은 사람들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지 않을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고 의지가 약해서 그만 타락하고 말았으며 아담을 비난한다. 그러나 그를 비난하기에 앞서 자기 자신을 돌아 보라. 강한 의지로 늘 선하고 의롭게 행동할 수 있는가? 아담은 신이 아니다. 아담도 우리처럼 분노하기도 하고 궁지에 몰리면 예상치 못한 행동을 할 수도 있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인간이다.] 아담은 결국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 먹었다. 머리가 나빠서도 아니고 의지가 약해서도 아니다. 선과 악을 안다는 것, 하나님의 경지에 올라가는 일은 죽음이라는 엄청난 리스크를 안고서라도 해보고 싶을 만큼 매력적이었기 때문이다. 아담의 문제를 좀 더 본질적으로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 예수님은 행위의 결과보다는 의도를 중심으로 죄의

유무를 판단하셨다. 마음에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았다면 실제로 간음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는 이미 간음한 자다. 아담의 아내 여자가 ‘나하스’ (뱀으로 번역됨)의 말을 듣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보니 그 열매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다. 게다가 그는 이미 ‘나하스’로부터 그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어’ ‘선과 악을 알게 된다’라는 말까지 들었다.

이 사실과 지금 바울의 진술을 연결해 생각해 보자. 아담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계명이 있었다. 계명이 없으면 죽음도 없다. 알다시피 그 계명이 작동하는 시기는 그가 실제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때이다. 그렇지 않으면 계명은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아담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는 한 계명은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먹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계명은 아담이 그 열매를 먹지 않는 한 사문화된 법에 불과하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여기서 적용하면 상황은 전혀 달라진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아담이 비록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아직 따먹지 않았더라도 마음 속에 먹고 싶은 욕망이 생겨났다면 이미 범죄한 상태다. 자신의 생각을 실행에 옮겼느냐 아니냐는 고려 대상이 아니다. 바울은 지금 계명이 오자마자 ‘나’라는 존재가 죽었다고 말하고 있다. 아담도 마찬가지다. 비록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아직 먹지 않았어도 그는 그 나무에 관한 계명을 받은 순간, 그는 이미 죽음에 노출된 것이다.

한 때 『코끼리를 생각하지마』 (2004)라는 책이 유행했었다. 미국의 언어학자 조지 레이코프가 진보 진영인 민주당이 선거에서 보수 진영인 공화당에 번번이 패하는 것을 보고 그 원인을 분석한 책이다. 누군가에게 코끼리를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 순간 그의 머리에는 자동적으로 코끼리가 떠오르게 된다. 코끼리를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면 할수록 코끼리는 더욱더 선명히 떠오른다. 코끼리를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 순간 코끼리는 듣는 사람의 뇌에 일종의 프레임을 형성하게 되므로 오히려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는 말이다. 얼마 전 한국에서 제 19대 대통령 선거가 있었다. 선거 과정 중에 다섯 명의 대선 주자들이 참석하는 대선 토론회가 열렸는데 당시 유력한 후보자 한 분이 경쟁 후보자를 향해 “제가 OO 이버타입니까?”라는 질문을 했다. 많은 시청자들은 그때까지 그 후보자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지조차 몰랐다. 하지만 그분이 그런 말을 한 후부터는 스스로 그 프레임에 갇히게 되고 그 토론회 이후 급격한 지지율 하락을 맛보게 되었다. 그 결과 그는 투표일 당일에 선거에서 패배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입으로 그 이야기를 한 순간 이미 선거에 패배한 것이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 먹으면 죽어!’ 이 말을 들은 아담의 뇌리에는 먹지마! 죽어! 이 두 개의 단어가 선명하게 프레임을 형성했다. 이처럼 계명이 ‘나’를 찾아와 내 안에 프레임을 만드는 순간 ‘나’는 즉시로 그 계명의 노예가 되고 만다. 성경은 그 상태를 죽은 것이라 한다. 살아 있는 사람이 어떤 죄를 지어 죽게 되는 것이 아니라 계명이 찾아오는 순간 그 계명은 ‘나’를 죽이고 대신 내 안에 존재하는 죄를 살려낸 것이다. 그러니 이제는 우리가 무엇을 행하든 그것은 모조리 죄다. 살아있는 내가 뭔가를 행하는 게 아니라 나는 죽었고 대신 내 안의 죄가 행하는 것이니 말이다. 그리고 그 결과는 사망이다.

묵상을 위한 질문

당신은 율법을 대할 때 어떤 생각이 떠오릅니까? 실제로 율법을 통해 당신은 생명과 사망 중 어느 것을 경험했습니까?

죄와 나는 함께 할 수 없다 (화요일)

오늘의 본문 (롬 7:9~11)

- ⁹ ἐγὼ δὲ ἔζων (나는 살아 있었다)
χωρὶς νόμου ποτέ, (법을 떠나 있었을 때)
ἐλθούσης δὲ τῆς ἐντολῆς (그러나 계명이 오자마자)
ἡ ἁμαρτία ἀνέζησεν, (죄가 다시 살아났다)
- ¹⁰ ἐγὼ δὲ ἀπέθανον (그리고 나는 죽었다)
καὶ εὗρέθη μοι ἡ ἐντολή (그 계명이 나에게 발견되었다)
ἢ εἰς ζωὴν, ([그 계명은] 생명으로 이끌어야 하는 것인데)
αὕτη εἰς θάνατον· (그것이 사망으로 이끌었다)
- ¹¹ ἡ γὰρ ἁμαρτία ἀφορμὴν λαβοῦσα διὰ τῆς ἐντολῆς (계명을 통해 기회를 잡은 그 죄가)
ἐξηπάτησέν με (나를 완벽하게 속였고)
καὶ δι' αὐτῆς ἀπέκτεινεν. (그것을 통하여 나를 죽였다)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죄와 ‘나’는 둘 다 함께 살아있을 수 없다. 바울의 진술에서 유추할 수 있는 두 번째 명제다. ‘나’(에고, ἐγὼ)는 분명 살아 있었던 적이 있다. 계명이 오기 전까지는 분명 살아 있었고 하나님과 관계도 좋았다. 문제는 계명이라는 것이 오고나서부터다. ‘나’는 계명이 분명 자신을 생명으로 이끌 거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결과는 정반대였다. 생명으로 이끌어야 할 그 계명이 결국은 죄를 살려내고 ‘나’를 죽였기 때문이다. 물론 계명이 ‘나’를 죽인 직접적 가해자는 아니다. ‘나’를 죽인 가해자는 죄다. 바울은 ‘나’와 ‘죄’는 양립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았다. 즉, 내가 살아 있다는 것은 죄가 아직 작동하지 않는다는 뜻이며 죄가 작동하고 있다는 말은 내가 죽었음을 의미한다. 결국 ‘나’와 ‘죄’는 결코 함께 살아서 공존할 수 없는 관계다.

예수님도 공생애 기간 동안 바울과 동일한 메시지를 전하셨다. 요한복음 5 장을 정리해 보자. 요한복음 5 장에는 38 년된 병자가 베테스다 연못가에 누워 있다가 예수님을 만나 그 병에서 온전히 해방된 사건이 기록돼 있다. 예수님이 병자를 고친 날이 하필이면 안식일이였다.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했다는 소식을 들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에게 따지고 들었다. 사실 이들은 지난 번 성전 정결 사건(요한복음 2 장)으로 인해 잔뜩 독이 올라 있던 터라 이번 일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었다. 그들은 안식일에 일을 했다고 예수님을 질타하기 시작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한 치의 물러섬 없이 그들을 향해 다음과 같은 신성모독과도 같은 발언을 하셨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 말은 불 붙은데 휘발유 끼얹는 격이 되고 말았다. 그들은 아예 예수를 죽일 모의까지 한다. 그런 상황에서 살기 등등한 유대인들을 향해 예수님은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선포하셨다. 요한복음 5 장 21-29 절을 읽어 보자.

“²¹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²²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²³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느니라 ²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

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²⁵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 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²⁶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²⁷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²⁸ 이를 기이히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²⁹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요 5:21-29).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이다. 그것도 율법에 매우 충실한 유대인들이다. 그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일을 했다고 해서 정죄할 정도로 율법을 충실히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이다. 그런 그들을 향해 예수님은 사망과 생명에 관한 메시지를 전하면서 그들을 사망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하셨다. 그 얘기를 듣고 있던 유대인들은 실소를 금치 못했을 것이다. 지금 누가 누구더러 죽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인가?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새 생명을 받기 전 모든 인간은 죽은 상태이며 새 생명이 와야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고 선포하신다. 예수님의 기준에서 죄는 무엇이며 사망은 무엇인가? 왜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예외없이 다 사망 상태에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일까? 그렇다면 자기들처럼 열심히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은 무엇이란 말인가? 히브리서 저자는 열심히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의 모습을 ‘죽은 행실’이라고 했고 사도 바울은 망령된 행실 (헛된 행실)이라고 했다. 히브리서 9장 13-14절과 베드로 전서 1장 18-19절을 읽어보자.

“⁴³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재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⁴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히 9:13-14).

“⁴⁸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 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⁴⁹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벧전 1:18-19).

히브리서와 베드로 전서는 공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다.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었고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율법의 행위를 통해 그 의로움을 입증하려 했다. 성경은 그러한 것들이 모두 죄며 ‘나를 살려내기는커녕 도리어 죽이는 것이라 했다. ‘죄’와 ‘나’는 절대로 공존할 수 없다. 죄는 나를 죽이고 나 대신 살아서 나를 조종한다. 그 조종하는 모습은 놀랍게도 내 마음대로 살게 하는 게 아니라 계명을 지켜 그것으로 스스로 의롭게 되려는 노력을 하게 만드는 것이다. 사실 가장 큰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만든 의를 부정하는 것이다. 죄는 늘 우리를 속인다. 죄는 우리에게 열심히 율법을 지키는 것이 생명을 얻는 길이라고 가르친다. 오늘날도 자신을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말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고 있다. 아직도 계명을 오해해서 율법으로 죄를 살려내고 오히려 ‘나’를 그리스도의 은혜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일을 하나님의 일로 착각하며 열심을 내고 있다. 참으로 유감이 아닐 수 없다.

묵상을 위한 질문

겉으로 보기에 의롭게 보이는 일이 당신을 사망으로 이끌고 있다는 바울의 말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당신은 바울이 한 것과 동일한 경험을 했나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지금 당신에게 율법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인간의 죽은 몸이 죄의 숙주다 (수요일)

오늘의 본문 (롬 7:9~11)

- ⁹ ἐγὼ δὲ ἔζων (나는 살아 있었다)
χωρὶς νόμου ποτέ, (법을 떠나 있었을 때)
ἐλθούσης δὲ τῆς ἐντολῆς (그러나 계명이 오자마자)
ἡ ἁμαρτία ἀνέζησεν, (죄가 다시 살아났다)
- ¹⁰ ἐγὼ δὲ ἀπέθανον (그리고 나는 죽었다)
καὶ εὗρέθη μοι ἡ ἐντολή (그 계명이 나에게 발견되었다)
ἢ εἰς ζῶην, ([그 계명은] 생명으로 이끌어야 하는 것인데)
αὕτη εἰς θάνατον· (그것이 사망으로 이끌었다)
- ¹¹ ἡ γὰρ ἁμαρτία ἀφορμὴν λαβοῦσα διὰ τῆς ἐντολῆς (계명을 통해 기회를 잡은 그 죄가)
ἐξηπάτησέν με (나를 완벽하게 속였고)
καὶ δι' αὐτῆς ἀπέκτεινεν. (그것을 통하여 나를 죽였다)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겨우살이라는 식물이 있다. 대부분의 식물은 땅에 뿌리를 내리고 스스로의 힘으로 영양분을 빨아들인다. 그런데 겨우살이는 다른 식물과는 달리 땅에 뿌리를 내리지 않고 다른 나무의 줄기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간다. 이 식물은 주로 참나무, 물오리나무, 밤나무, 팽나무 등에 기생한다. 모양은 마치 새가 둥지를 튼 것처럼 둥글게 자라는데 어떤 겨우살이는 지름이 1m에 달하는 것도 있다. 겨우살이는 생육을 위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데 겨우살이의 열매는 과육이 잘 발달되어 있어 산새들이 좋아한다. 그래서 산새들은 겨우살이의 열매를 먹고 씨를 다른 나무로 옮기는 역할을 한다. 겨우살이와 같은 식물을 통칭하여 기생 식물이라 한다. 기생이란 그 말에서 알 수 있듯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는 독립해서 살 능력이 없는 존재가 생존해 가는 방식이다. 죄도 마찬가지다. 죄는 죽은 자의 몸에 기생한다. 죄는 인간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다. 인간의 죽은 몸이 죄의 숙주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본문에서 유추해 낼 수 있는 세 번째 명제다. 사도 바울은 죄가 계명으로 '나'를 완벽하게 속여서 그것을 통해 나를 죽였다고 했다. 죄가 살아나서 활개를 치기 위해 '나'라는 존재는 죽어야 한다. '나'의 죽음이 '죄'의 생존 조건이 된 셈이다.

이제까지 우리들은 '죄'란 인간들이 만들어 내는 부정적인 행위 정도로 생각했다. 대표적으로 언급되는 죄들이 살인, 도적질, 간음 등이다. 유대인들은 우리들보다 죄에 대해 좀 더 심층적으로 접근했다. 그들에게는 병도 죄고, 가난도 죄였다. 단지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출신 성분도 죄를 판단하는 잣대 중의 하나였다. 일례로 예수님이 살던 당시에는 예수님도 유대인들의 눈엔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받지 못한 사람들 중 하나였다. 예수님이 아무리 훌륭한 인품을 갖고 사람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했다 할지라도 종교 지도자들의 눈에 비친 예수님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무리들 중 하나였다. 소위 예수님의 스펙은 종교 지도자들의 눈엔 정말이지 형편없었다. 일단 예수님은 당시 바리새인들에게 선망의 대상이던 최고 권위의 종교 기관인 산헤드린 공회에 들어가기 위한 필수 코스인 명문 랍비 학교를 다니지도 않았다. 예수님은 당시 양대 명문 랍비학교였던 힐렐이나 샴마이 출신이 아니다. (참고로 바울은 힐렐 학파 출신이고 그 유명한 가말리엘이 그의 스승이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율법을 강론할 때 그 수준에 혀를 내두르다가도 예수님의 미천한 배경을 보고는 이내 폄하하기 시작했다. 배운 것도 없는

사람이 어찌 그렇게 탁월하게 율법을 강론할 수 있느냐며 의아해 했다. 또한 귀신을 쫓아낼 때에는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하는 거라고 폄하하기 일쑤였다.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목수 일을 해온 것도 그들에게겐 비웃음거리였지만 예수님의 출생 과정은 입에 올리기도 부끄러운 죄 그 자체였다. 당시 유대인들은 인간들이 행하는 일도 죄지만 태어난 배경 또한 죄의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바울은 전혀 다른 관점에서 죄 문제를 설명하고 있다. 바울은 인간들이 어떤 일을 하건 상관없이 그들이 만들어 내는 것은 전부 다 죄라고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새생명을 받기 전 모든 인간들은 이미 죽었기 때문이다. 죄는 오직 사망의 몸에서만 역사한다. 물론 율법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지만 그 역할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게 아니었다. 우리가 그 계명을 지켜내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하는 게 율법의 역할이 아니라 그와는 정반대로 내 (에고, ἐγώ) 안에 잠복하고 있던 죄를 깨워서 살리는 것이었다. 실제로 계명은 인간 안에 있던 죄를 일깨웠고 그 죄는 인간을 사망으로 이끌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하나님께서 율법과 인간 내면에 숨겨진 양심을 통해 모든 인간을 죄 아래 가두었다고 선언했다. 로마서 3장 9절과 19절을 읽어보자.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중략)...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롬 3:19).

하나님은 율법을 보내셔서 모든 인간들을 죄 아래 가두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이 현재 사망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해 주셨다.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계명, 즉 율법을 몽학 선생에 비유하고 있다. 성경은 구원을 다양한 형태로 설명하고 있다. 죽은 자가 되살아나는 것을 거듭남이라 하고 죄를 용서받는 것은 속죄라 한다. 또한 노예 상태에서 풀려나는 것을 구속 또는 속량이라 한다. 관점에 따라 용어만 다를 뿐 모두가 같은 뜻이다. 인간은 죄로 인해 사망 상태에 이르렀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생명을 얻는 거듭남을 경험하게 된다. 율법이 개입하여 개개인이 죄인임을 알게 되고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깨닫게 된다. 그리고 그 순간 십자가의 구원을 믿게 되고 어둠보다 더 검던 죄가 흰눈보다 더 희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를 속박하던 것은 율법이다. 율법은 우리를 움푹달짝 못하게 만들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율법의 저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을 계명과 죄와 사망이라는 단어로 설명하고 있다. 당신은 속죄함을 받았는가? 그렇다면 당신은 하나님이 더 이상 당신을 율법으로 판단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믿는다는 뜻이다. 당신은 거듭난 자인가? 그렇다면 당신은 이미 죄로 인해 죽었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다. 당신은 속량받은 자인가? 그렇다면 당신은 율법의 굴레로 인해 억눌린 삶을 살아왔다는 말이다. ‘나라는 존재가 죄로 의해 죽임 당했다는 사실에 너무 연연해 하지 말라. 하나님이 계명으로 공연히 ‘나를 죽이는 게 아니다. 이는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리기 위함이다. 에베소서 2장 말씀으로 설명을 마무리 하고자 한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중략)...⁴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⁵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⁶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중략)...⁸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⁹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엡 2:1-9).

묵상을 위한 질문

당신은 왜 죄인입니까? 무엇이 당신을 사망으로 이끌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율법으로 당신을 사망으로 끌고 가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그 과정에서 당신은 어떤 깨달음을 얻었습니까?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은 선하다 (목요일)

오늘의 본문 (롬 7:12~13)

- ¹² ὥστε ὁ μὲν νόμος ἅγιος (결과적으로 사실 율법은 거룩한 것이다)
καὶ ἡ ἐντολὴ ἁγία καὶ δικαία καὶ ἀγαθή. (그리고 계명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이다)
- ¹³ Τὸ οὖν ἀγαθὸν ἐμοὶ ἐγένετο θάνατος; (그러므로 그 선이 나에게 사망이 되었느냐?)
μὴ γένοιτο.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ἀλλ' ἡ ἁμαρτία, (그러나 그 죄가)
ἵνα φανῇ ἁμαρτία, (죄가 나타나기 위하여)
διὰ τοῦ ἀγαθοῦ μοι (그 선한 것을 통하여 나에게)
κατεργαζομένη θάνατον, (사망을 만들어냈다)
ἵνα γένηται καθ' ὑπερβολὴν ἁμαρτωλὸς ἡ ἁμαρτία (죄된 죄가 넘치게 된다)
διὰ τῆς ἐντολῆς. (계명을 통하여)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계명은 선하다. 인간이 율법을 모두 지켜낼 수 있어서도 아니고 또 그것으로 이 세상을 평화롭고 살기 좋은 낙원으로 만들어갈 수 있어서도 아니다. 바울은 말한다. 율법이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한 이유는 그것이 내 안에 있는 죄를 살려내어 ‘나’를 사망으로 이끌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계명을 통해 인간은 선과 의를 행할 수 없는 죽은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그리고 그것이 마침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준다.

“그러므로 그 선이 나에게 사망이 되었느냐?” “결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사도 바울은 자문자답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계명을 적극 변호하고 있다. 계명은 선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 최종적으로 사망을 주지는 않는다.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계명을 주심으로써 인간들 안에 잠복해서 인간들을 노리고 있던 죄를 알게 만드셨다. 그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을 멀어지게 한다. 죄가 인간들 안에 잠복하고 있는 한 인간들은 어떠한 행위를 하고 어떠한 삶을 살든 상관없이 모두가 하나님과는 무관한 죽은 자들일 뿐이다. 그런데 율법이 없으면 그 사실을 깨닫기란 불가능하다. 바울은 이미 율법은 죄를 깨달으라고 주신 것이라 선언한 바 있다 (롬 3:20).

요즘 많은 사람들이 암으로 고생을 한다. 음식 문화가 서구화되면서 암에 걸리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건강하던 사람이 건강 검진 도중 암이 발견돼 수술했다는 사례가 부쩍 늘어났다. 과거에 비해 암이 많이 발견되는 이유는 물론 식생활에 문제가 많아서이기도 하지만 삶의 질이 나아지면서 건강 진단을 받는 경우가 늘어난 때문이기도 하다. 지금처럼 의료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에는 발견되지 않았던 암들이 이제는 조기에 발견되고 있다. 암은 사람을 죽이는 나쁜 세포다. 각종 의료 장비는 그 암이 몸 속에 자라고 있는지 여부를 알려준다. 그 장비가 없으면 암의 존재 여부를 조기에 발견하기 어렵고 증상이 나타나고 나서야 알게 된다. 물론 증상이 나타난 경우는 대부분 암이 퍼진 상태여서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에 암의 조기 발견에 쓰이는 각종 의료 장비들은 사람들에게 매우 고마운 것들이다. 그런데 율법이 바로 그런 기능을 한다. 율법은 암을 발견해 내는 의료 장비에 해당하고 죄는 암세포에 비유된다. 첨단 장비일수록 더 정확하게 암세포를 발견해 내듯 선하고 거룩한 계명일수록 내 안에 존재하는 죄를 더 밝히 드러낸다.

문제는 율법을 대하는 인간들이다. 우리가 죄인임을 알게 하기 위해 율법을 주셨는데 도리어 그것으로 죄를 씻어내고 자신의 의로움을 입증하려 하기 때문이다. 검사 장비로는 수술을 할 수 없다. 검사 장비는 병의 유무만 알려줄 뿐 그 병을 수술할 수는 없다.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계명을 잘 지키면 그것으로 자신이 의롭게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 계명이 마치 자신을 거룩하게 만들어 주는 도구이자 잣대가 되어 계명을 문자 그대로 지키면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다고 착각했다.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통해 죄를 깨닫고 자기 힘으로는 그 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 또한 깨달아 그리스도께 매달려야 하는데 사람들은 도리어 그리스도는 외면하고 여전히 율법에 매달려 있는 것이다. 선하고 거룩한 율법이 도리어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게 만든 원흉이 된 셈이다. 이같은 문제를 간파한 사도 바울은 율법에 매달리는 사람들에게 아주 강한 어조로 그것으로부터 해방될 것을 권하고 있다. 에베소서 2장 11절~17절을 읽어보자.

“¹¹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 때에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 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¹² 그 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¹³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¹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¹⁵ 원수 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¹⁶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 된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¹⁷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엡 2:11-17).

바울은 율법을 원수, 곧 의문(문자적 교리)에 속한 계명의 율법이라 말하고 있다. 율법이 존재하는 한 인간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에 매달리기 보다는 율법에 의존한다. 그리스도의 사역에 매달리는 것은 염치없고 비겁한 일이라 생각되기 때문이다. 인간들이 스스로의 능력으로 의로운 행위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뒤로 숨어버린다면 그거야말로 나약하고 비겁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행동이 아니냐고 역설하는 분들이 있다. 아마도 율법을 이 세상에서의 도덕이나 법과 혼동하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법과 예절을 지키는 것이 곧 율법을 지키는 것은 아니다. 율법은 도덕이나 법과는 차원이 다르다. 율법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한다. 그리고 그날엔 절대 일을 하면 안 된다. 또한 남자 아이들은 반드시 할례를 행해야 하고 여자들은 생리 때마다 부정해지므로 격리돼야 한다. 뿐만 아니라 율법에 따르면 돼지고기와 같은 부정한 음식은 먹을 수 없다. 알다시피 이방인이었던 우리들은 지금껏 율법과는 무관한 생활을 해 왔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우리에게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 그 계명들을 지켜야 한다고 말한다면 참으로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지금 바울은 그러한 율법과 계명들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내려준 의문의 율법을 폐하시고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한 의로만 인간을 판단하기로 하셨다. 당연히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법과 도덕으로 인간을 판단하실 리도 없다. 사회 질서를 위해 만들어 놓은 법과 도덕을 그리스도인들이 지키는 건 당연하며 어쩌면 다른 이들보다 더 열심히 지켜야 한다. 그러나 설령 그런 행위를 칭찬 받는다고 해서 그것으로 자신의 의를 삼고 자랑해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으면 아무리 선한 삶을 살아도 죽은 행실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생명을 얻고 의로움과 거룩함에 이를 수 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리다.

목상을 위한 질문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어 가는 율법이 어떻게 선한 것일 수 있습니까? 당신은 율법을 통해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육신적인 나’ (예고 사르키노스)(금요일)

오늘의 본문 (롬 7:14)

¹⁴ Οἶδαμεν γὰρ (왜나하면 우리는 알고 있다)
ὅτι ὁ νόμος πνευματικός ἐστίν, (율법이 영적이라는 것을)
ἐγὼ δὲ σάρκινός εἰμι πεπραμένος (그러나 육신적인 나는 팔렸다)
ὑπὸ τὴν ἁμαρτίαν. (죄 아래로)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율법은 영적이다. 율법이 영적인 이유는 그 율법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이다. 노예의 삶으로부터 벗어나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흘길이면 도착한다는 직선 경로를 택하지 않고 시나이 반도 남쪽으로 방향을 돌렸다. 누구보다 그곳의 지리에 익숙한 모세였으니 실수로 길을 잃어 그쪽으로 왔을 리 만무하다. 출애굽을 한 지 사십여 일을 걸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침내 시내산 자락에 도착했고 그곳에 베이스 캠프를 쳤다. 하나님은 그들을 여기까지 인도한 지도자 모세를 시내산 꼭대기로 불러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너는 이같이 야곱 족속에게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 ⁴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⁵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⁶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찌니라”(출 19:3-6).

이 말씀은 바로 율법에 대한 예고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라고 선포하셨다.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한 조건이 하나님의 율법을 잘 듣고 그 언약을 지키는 것이었다. 율법은 거룩을 담보하는 기준이다. 율법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내려 온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거룩하고 그 자체로 신령한 것이다. 바울은 누구보다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후 그 율법에 대해 새로운 깨달음이 왔다. 자신이 율법을 모두 지켜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가 되었지만 그것이 곧 자신이 거룩하고 의로운 자임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는 사실이었다. 오히려 그렇게도 애지중지 지켜 오던 그 율법이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추한 췌덩어리인지를 알게 했다. 그때부터 율법은 날마다 바울을 괴롭혔을 것이다. 그는 마치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혀 성전 안으로 끌려 온 그 여인처럼 율법이 자신을 정죄하는 소리가 끊임 없이 웅웅거려 귀를 막기도 했을 것이다.

바울은 그런 자기 자신을 ‘육신적인 나’ (예고 사르키노스, ἐγὼ ... σάρκινός)로 표현하고 있다. 영적인 율법이 오자 그의 정체는 여지없이 탄로나고 말았다. ‘육신적인 나’라는 말은 날마다 자신이 죄를 짓고 있다는 걸 의미하지 않는다. 바울의 진술은 그보다 더 본질적이다. 죄를 행하는 자신을 발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이 췌덩어리인 줄도 모르고 스스로를 같고 닮아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존재로 서려 했던 자기 자신을 발견한 것이다. 췌덩어리인 육신은 스스로의 힘으로 개선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성화가 되는 것도 아니다. 죽고 새로운 몸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조금은 속된 표현이지만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되지 않는다는 말처럼 아무리 아무리 겉치장을 화려하게 해도 본질은 절대 바뀌지 않는다는 말이다. ‘육신적인 나’가 거룩한 존재가 되는 길은 육신을 같고

뒤아서 되는 게 아니다. 오히려 욱신이 죽고 그리스도를 향해 다시 살아나는 것만이 유일한 길이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 이렇게 선언한 바 있다.

“²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욱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²⁵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찌니 ²⁶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찌니라”(갈 5:24-26).

24절을 좀더 정확히 번역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정욕과 욱망과 함께 그 욱신을 십자가형에 처했다”이다. 욱신이 못 박힘으로 그 욱신이 지니고 있던 내적 욱망들도 죽은 것이다. 26절에서 헛된 영광은 세상적인 영광이 아니라 욱신이 만들어내는 인간적인 자랑거리들이다. 유대인들에게 자랑은 당연히 율법을 행함으로부터 오는 자랑거리들이었다. 그런데 그 모든 노력들이 죄다. 예수님은 이렇게 율법으로 자신을 치장하는 사람들에 대해 이렇게 질타하신 바 있다.

“²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³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⁴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⁵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니 곧 그 치는 경문을 넓게 하며 옷술을 크게 하고 ⁶ 잔치의 상석과 회당의 상좌와 ⁷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마 23:2-7).

예수님께 비판받았던 이들은 당시 예루살렘에서 존경받던 종교 지도자들이었다. 그런데 그들은 율법을 이용해서 자신들을 치장하기에 비뻤다. 남들에게 칭찬받는 선한 행위를 함으로써 스스로를 거룩하게 생각했다. 하지만 율법은 그들을 영적으로 변화시키지 못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바울도 그랬다. 율법 앞에서 그렇게 되지 않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 율법이 오는 순간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내면에 있는 욱망이 발동하게 되고, 욱망은 그 율법을 이용하여 자신을 치장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욱망을 품고 있는 그 욱신이 십자가에 못박혀야만 비로소 인간은 율법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 그런데 그 길은 단지 이 모든 내용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만으로 가능해지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고 그가 하신 일에 전적으로 매달릴 때 율법이 아닌 성령에 의해 다스림 받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묵상을 위한 질문

율법의 요구대로 행할 때 당신은 어떤 느낌이 듭니까? 반대로 그렇지 못할 때는 어떤 느낌이 듭니까? 당신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설 수 있습니까?

미워하는 것을 행하고 있는 ‘나’ (토요일)

오늘의 본문 (롬 7:15~17)

- ¹⁵ ὁ γὰρ καταργῶμαι (왜냐하면 나는 그것을 만들고 있다)
οὐ γινώσκω· (그러나 나는 알지 못한다)
οὐ γὰρ ὁ θέλω τοῦτο πρῶσω, (왜냐하면 나는 내가 원하는 그것을 행하지 않는다)
ἀλλ' ὁ μισῶ τοῦτο ποιῶ. (오히려 내가 미워하는 그것을 행한다)
- ¹⁶ εἰ δὲ ὁ οὐ θέλω τοῦτο ποιῶ, (만약 내가 원치않는 것을 그것을 행한다면)
σύμφρημι τῷ νόμῳ (내가 율법에 동의하고 있다)
ὅτι καλός. (그것은 선한 것이다)
- ¹⁷ νυνὶ δὲ (그러나 지금)
οὐκέτι ἐγὼ καταργῶμαι αὐτὸ (더 이상 내가 그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ἀλλ' ἡ οἰκοῦσα ἐν ἐμοὶ ἁμαρτία. (내 안에 거하고 있는 죄가 [그것을 만든다])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우리는 율법이 영적이라는 사실을 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율법을 지킬 수도 그 아래 머물 수도 없다. 저항할 수 없는 능력을 지닌 죄라는 존재는 ‘나’를 굴복시킨다. 이 과정에서 ‘나’는 철저히 피동적이다. ‘나’라는 존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 것도 없다. 신성한 율법이 나에게 오면 내 안에 존재하던 죄가 살아난다. 그리고 그 죄는 나를 그에게 철저히 굴복시킨다. 죄는 내가 원하는 건 행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하도록 한다. 죄에게 철저히 굴복된 나는 죄에게 조종당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죄에게 조종당하고 있는 ‘나’는 어떤 상태인가? 특하면 술, 담배에 찌들어 살고, 불륜을 저지르고, 타인에 대한 배려라고는 눈꼽만치도 없이 자기중심적으로 사는... 소위 말해서 세상 말종으로 살아가는가? 이 편지를 쓴 사람은 사도 바울이다. 그는 단 한번도 율법에 어긋난 삶을 살지 않았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바리새인으로 살았을 때도 그랬고, 예수님을 만난 후 사도의 삶을 살 때도 그는 최선을 다해 선하게 살았던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여전히 ‘나’라는 주어를 사용함으로써 스스로를 죄에 팔려 죄에 종노릇하는 사람의 대표로 내세웠다.

바울에게 있어 죄의 지배를 받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하나님의 의보다 자신의 의를 더 내세우는 것을 말한다. 인간이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는가?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당연히 의로운 삶을 살 수 있고, 세상의 칭찬을 받을 수 있으며, 죽어서도 후세에 추앙을 받을 수 있다. 어떤 이들은 다른 사람을 위해 목숨을 버릴 수도 있고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란 칭찬을 들을 수도 있다. 사도 바울도 인간적인 기준으로 타인들의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음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나’로 지칭되는 본인이 죄 아래로 팔려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지 않고 원치 않는 것을 행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정황으로 판단하건데 바울이 말하는 원하는 것, 또는 원치 않는 것은 인간들이 생각하는 선악의 기준과는 전혀 다른 어떤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생각한 죄는 무엇일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인류의 조상 아담을 살펴보기로 하자. 하나님은 아담을 만드시고 에덴에 살게 하시면서 그에게 단 한 가지를 금하셨다. 바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는 율법이다. 그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게 된다는 경고도 함께 주셨다. 하지만 아담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데 실패한다. 물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못할 것을

아셨다. 알다시피 어느 날 ‘니하스’ ((נִחָס): 뱀으로 번역됨)가 여자를 유혹해서 그 열매를 먹도록 했다. 니하스가 여자를 유혹하며 한 말에서 우리는 죄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니하스(뱀)와 여자의 대화를 살펴보자.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²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³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⁵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창 3:1-5).

창세기 3장 5절에 죄에 관한 핵심 내용이 들어 있다. 5절 후반절에서 니하스(뱀)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라고 말한다. 인간의 눈이 밝아진다는 것은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해 선악 기준이 생긴다는 말이다. 정결한 것과 더러운 것, 옳은 것과 그릇 것, 착한 것과 나쁜 것, 아름다운 것과 흉한 것 등의 기준이 내면에 생겨 세상의 사물들과 사건들을 판단하고 분류한다는 말이다. 그렇게 자신이 선악 판단의 주체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같이 되는 것이다.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선악을 분별하는 하나님의 기준임에도 불구하고 인간들 스스로의 생각으로 선과 악을 구별하고 자신이 생각하기에 선하고 거룩하고 정결한 것, 착하고 좋고 옳은 것을 행하게 된다. 바울은 그것을 ‘죄’의 지배를 받는 상태로 보았다. 그렇게 행하는 것이 세상에 나쁜 영향을 주어서가 아니다. 오히려 선한 영향력을 줄 때가 많다. 문제는 인간이 그것으로 하나님의 영역을 침해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하나님이 이담과 하와를 에덴에서 쫓아낼 때 하신 말씀을 보면 이해하기 쉬운 것이다.

“²²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 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창 3:22).

인간이 생명나무로부터 격리된 이유는 간단하다. 그들이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처럼 되었기 때문이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난 후부터 인간은 선악 판단이라는 하나님의 고유 영역을 침해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죄다. 율법은 옳고 그름, 정결함과 더러움을 판단하는 하나님의 기준이다. 그런데 그것이 인간에게 주어지면 그것은 이내 인간 안에 내재화되어 하나님은 간 곳 없고 마치 인간이 율법의 주체인 것처럼 행동하게 된다. 바울은 율법으로 인해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음을 발견했고, 아무리 노력해도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율법의 굴레로부터 벗어나는 길은 율법이 지시하는 대로 행하되 그 결과를 의의 열매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배설물로 여기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에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고백했다.

“⁷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뿐더러⁸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⁹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빌 3:7-9).

묵상을 위한 질문

당신은 하나님의 선악 기준을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당신은 어떻게 그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나요? 바울처럼 그것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습니까? 그것이 당신에게 어떤 유익을 줄까요?